



한 · 튀니지 양국의 상호적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언



한국과 튀니지 양국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가운데 특히 교육 분야는 공동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발판이다.

양국이 시도하는 공동 노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:

- 혁명 이후, 민주주의 이양 종료 이후라는 정치적·사회적 배경,
- 교육분야에 대한 튀니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증대된 관심,
-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분야의 개혁,
- 교육 분야의 IT기술 도입 가능성





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튀니지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:

1- 프로그램과 교과서 분야 :

역사와 지리 교과목에서 문화, 역사, 인구, 지역, 자원, 국부 등 양국에 대한 내용의 도입 가능성을 타개한다.

이와 함께 양측은 교과서 개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.

2- 문화·스포츠 교류 분야 :

양국 교육기관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.

튀니지 교육부와 유럽연합이 타결한 ‘e-twinning’ 같은 디지털 연계를 검토해 볼 수 있다.





3-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분야:

교육 개혁에 있어 학습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며,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의 협력을 요청한다 :

- 기존 플랫폼에 배포되는 디지털 콘텐츠 교류를 통해 특히 문화, 관광 측면에서 양국의 학생, 교사, 교육 공무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
-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전략적 제휴에 착수한다 :
 - *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 개발 (원격 교육, 변화 준비 등),
 - * 학교 운영,
 - * 교육적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산업의 개발,
 - * 학교 시설의 연계성과 LAN망 보급,
 - * 시스템 운영,
 - * 디지털 장비와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자재 제작 과정의 운영과 자동화된 유지 보수.



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